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음 4월 29일) 제20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남북관계 바탕 북미관계 개선 문 대통령 '두바퀴론' 재확인

“북핵·적대관계 청산 북미 간 대화에 기댈 수 없어
 남북 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야” 강조
 “남북미 진정성 있는 노력 필요”... 3자 종전선언 의지도



화에 대한 큰 합의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친 것도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언급한 것은 평소 지론인 '두 바퀴 평화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합의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대한 결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핵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의 대화에만 기댈 수는 없다. 남북 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남북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의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합의라는 두 축이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기존의 확고한 인식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한 차례 취소한 것과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뻔했던 일련의 경험들에서 확인했듯,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으로 동시에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비핵화 합의와 우리에게 주어진 남북 간 각종 후속 회담이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동시에 잘 굴러가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문제가 정상 간 회담 한 번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며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리지는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남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주변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번에 무산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굳이 이번 북미 회담이 아니더라도 7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내지는 9월 유엔총회 때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진성 기자

소나기 내린 뒤 안개가 뒤덮은 전주한옥마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린 11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치명자산에서 바라본 기린대로 일대가 뿌연 안개로 뒤덮여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6·13 지방선거 D-1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하림, 농가수익 우선 준 공기업 역할 '톡톡'

회사 수익보다 농가 고수익·도산 제로화 가치 실현
 사육경비 소득 3.82배 늘었음에도 10년새 가격변동 없어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이 회사의 이익률보다 계약 농가의 수익이 훨씬 높고, 도산 제로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등 준(準) 공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주)하림은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영업 이익률이 적자와 흑자가 들쭉날쭉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이 강하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하림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4%로 제조업 평균 5.0%, 식품업 평균 4.2%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이익률 2% 수준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최근 IT 및 벤처 업계의 이익률 20% 수준과 비교할 때 기업의 가치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게시된 (주)하림의 2000년 이후 영업이익률 추이를 분석해보면 2000년 2.73%의 영업이익이 2003년 국내 첫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왜곡된 소비심리

로 소비가 70% 수준까지 급감하면서 매출액 3,260억원의 가장 낮은 이익률을 기록했다. 이후 2004년 3.35% 이익률을 기록했으나 2007년 AI여파로 종계 살처분이 대량으로 이뤄져 또 다시 -4.52%, 2012년 -1.69%, 2014년 -0.24%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무더위와 폭염이 극심했던 2009년 8.61%(매출액 5,752억원), 2010년 9.02%(매출액 6,576억원)로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으며 이후 최근 10년새 1% 수준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육농가의 소득은 2000년 평균 5,000만원, 2007년 7,400만원, 2010년 1억2,800만원을 달성하고, 2013년 1억5,10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동안 매년 1,000만원씩 증가하는 일명 '하림 1,000의 법칙'이 완성돼 지난해말 기준 1억9,100만원의 평균 사육경비 소득을 기록해 같은 기간 3.8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이 기간동안 하림의 평균 영업 이익률이 2.04% 수준으로 낮고 농가당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이 3.82배 증가했음에도 최근 10년 평균 닭고기 도매가격은 3,222원(한국육계협회 도계육 11호 기준)으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농가수익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를 비롯해 최근 5년여동안 계열기업들과 농가들이 경쟁적 종계입추로 닭고기 공급이 과다해져 기업들이 서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은 크게 늘어 사기업의 영업이익 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림은 '도산농가 제로(ZERO)' 정책으로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의 도산농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농장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농가와 동반 성장하는 국가 대표 기업임을 자부한다”며 “국내 농가 기업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상생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13일 지방선거로 인한 공휴일인 관계로 신문은 14일 발행합니다.

6·13 지방선거 D-1 투표 참여 즐거움을 함께

전북선관위, 공감 문화공연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한 유권자 공감 문화공연을 최근 전주 혁신도시에서 실시했다. 전북선관위는 왕비대차량으로 제작한 이동형 무대를 이용하여 전북대학교 앞 광장, 군산과공영원, 혁신도시 등 유권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노래, 춤, 플룻연주와 같은 공연과 함께 선거이야기를 유권자들과 편하게 공유했다. 특히, 지난 8일 전주 혁신도시에

서 진행된 투표참여 독려 문화공연에서는 주민들도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등 유권자인 어른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됐다. 전북선관위 서성원 홍보과장은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 중 하나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사는 지역의 행복을 위해서 남은시간 동안 후보자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해 참여의 즐거움을 모두 함께 즐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실시

오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내 청소년들이 전북도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된다. 6.13 지방선거청소년모의투표 전북운동본부는 도내 30개 청소년 기관과 학교 공동 주관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현장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정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향상을 위해 진행되며,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식은 투표일 이전에는 온라인(www.18vote.net)에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 당일 현장투표소를 방문하는 2가지 방식이다. /김진성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